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승진... AI 등 미래 경쟁력 확보 집중

부회장 승진에 경영권 승계 '속도' 사장 승진 후 2년 1개월만에 올라 "조선 경기불황에도 경쟁력 확보"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미국 CES 현장에서 농기계업체 존디어관을 둘러보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HD현대그룹의 '3세 경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 신임 부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다. 정 신임 부회장이 사장 승진 2년 만에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현대가(家) 3세 경영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 신임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온 HD현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10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 정기선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21년 10월 당시 현대중공업지주(현 HD현대) 사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만에 부회장으로 오른 것이다. 200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정 부회장은 2011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당시 현대중공업 그룹 기획실 기획팀 담당(부장), 재무팀(상부), 부실장(전무) 등을 거쳤으며 현대중공업 경영 지원실장도 맡아 계열사별 사업전략과 성장기반에 큰 힘을 보탰다.

또 지난 2016년에는 HD현대글로벌 서비스 출범을 주도했으며 2021년에는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해 본격적인 3세 경영의 서막을 열었다. 지난해 3월에는 정기주주총회에

서 HD현대와 조선부문 중간지주인 HD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은 세계 조선 경기 불황에도 선박영업과 미래기술연구원 등에서 일감 확보·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준비에 힘을 쏟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HD현대의 주력인 조선 사업 외에도 정유, 건설기계, 전력기기 등 그룹 내 다른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섰다. 그동안 HD현대그룹 내에서 주요 사업을 두루 경험하며 착실하게 경영 능력

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부회장은 전 세계 탄소중립과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에 맞춰 수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저장·활용에 이르는 '수소밸류체인' 구상을 공개했으며, 지난해에는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들과 여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특히 정 부회장은 올해 초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3에서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HD현대그룹의 미래 전략인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내년 초에 열리는 'CES 2024'에서는 기초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D현대는 그룹 사령관인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 권 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 그룹 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정 부회장은 조선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 시점을 권 회장의 은퇴 시기인 3년 뒤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회장이

은퇴하기 전까지 정 부회장이 정몽준 이사장의 대주주 지분(26.60%)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정 부회장은 HD현대 지분 5.26%를 보유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정기선 부회장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기존 사업의 지속 성장은 물론, 새로운 50년을 위한 그룹의 미래사업 개척과 조직문화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오승현 HD현대 인프라코어 대표이사 부사장과, 강영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강영 신임 사장은 현재 기업 결합이 진행 중인 STX중공업의 인수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맡을 예정이다.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은 공동 대표이사로서 안전 경영 및 동반성장을 담당한다. 또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김원수 HD현대로보틱스 부사장,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부사장이 각각 새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들 내정자는 향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대표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힘들고, 재료비 부담”... 늘어나는 ‘김포족’에 포장김치업계 방긋

(김장 포기족)

1·2인가구·맞벌이 늘어 편의성 중시 주재료 저렴해도 양념 재료들 비싸 정부,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만전'



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김장재료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장 꼭 해야 하나요? 남편도 집에서 저녁 한 끼만 먹고, 회사원인 딸에 대학생인 아들까지 자취를 시작하면서 직접 담그기보다, 포장김치를 사먹게 되더라고요. 김치를 많이 할 게 아니다보니 사서 먹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거 같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던데요.”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 A(55세)씨는 올해 김장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김장을 포기하는 일명 '김포족'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김장철

채소류 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김장 배추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줄었다. 응답자 59%는 전년과 비슷하게 김치를 담글 것이라고 답했고, 27.8%는 전년보다 적게 담글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게다가 구매를 원하는 배추는 19.9포기(4인 가족 기준)로 전년 21.8포기보다 줄었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고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김

포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식품산업통계정보(FIS)의 올해 3월 발간한 '김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가구의 김치 조달 방법 가운데 포장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31.3%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배추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 '김포족' 증가의 원인

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김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김장비용(배추 20포기 기준)은 21만8425원으로 1년 전보다 9.4% 하락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김장 주재료인 배추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3.8% 내려갔다. 배추 가격은 정부 비축 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출하 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는 전년보다 45.1% 하락했다. 부

재료인 간마늘과 양파도 각각 32%, 25.7% 저렴하다.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각각 11.5%, 5% 하락했다. 반면 고춧가루(0.8%), 대파(13.9%), 생강(9.9%), 배(11.5%), 소금(14.6%) 등은 가격이 올랐다.

주재료가 저렴하더라도 양념 재료들이 비싸다보니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료를 사다가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각종 양념소를 만들어 버무리는 일까지 시간과 힘을 들이기보다, 포장 김치를 사먹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많다보니 김치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DSR 적용범위 확대, 점진적 추진 계획”

>> 1면 '가계대출 7개월째 ↑'서 계속

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적용 지적

현재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은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으로 정

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특례보증자리론과 주담대 만기연장, 신규대출로 전환하는 차주에 한해 대출시점 DSR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4억원 한도내 DSR 규제를 한시적(1년간) 완화했다.

DSR적용 가능성이 큰 항목은 중도

금·잔금 대출과 전세대출이다.

특히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나 투기목적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사용되는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잔액도 급증하고 있어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부산·인천·광주 등 대도시 오름세 뚜렷

>> 1면 '전국물가 서울이 끌어올려'서 계속

주요 시 중에선 대구 등 3곳 4% 미만

한편 물가의 지역별 편차를 통계청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의 경우, 서울이 4.2%를 나타낸 10월에 물가상승률이 2.9%에 그쳤다. 또 4월(3.1%), 5월(2.6%), 6월(2.0%), 7월(1.8%), 8월(2.5%), 9월(3.2%) 등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돌았다. 세종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유일하게 2%대였다.

또 제주(10월 3.0%) 등이 낮았던 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이 9월(17곳 중 유일)과 10월 2개월째 4%대로 올라선 데 이어 10월에는 부산(4.1%)과 인천(4.0%), 광주(4.0%), 울산(4.0%)이 합류했다. 8개 주요 시 가운데 대구(3.5%)와 대전(3.7%), 세종 등 3곳만이 4% 미만이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남(4.0%)을 제외하고 모두 3%대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9월(3.6%)과 10월(3.6%) 등 최근 전국 평균(3.7%, 3.8%)보다 상승세가 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